

### 吾園筆 梨谷山莊圖

全 鎔 弼

우리나라 近世畫人中 가장 代表的인 作家의 한 분인 吾園 張承業의 作品은 山水人物翎毛器皿折枝等 훌륭한 遺作들이 많이 保存되어 잘 傳해오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바이나 謙齋나 玄齋같이 我邦山川의 眞景을 그린 作品을 別로 볼 수가 없고, 또 檀園이나 惠園같이 鄉土의 風習物情을 主題로 한 風俗畫를 보기 힘든 것은 적은 積習이 深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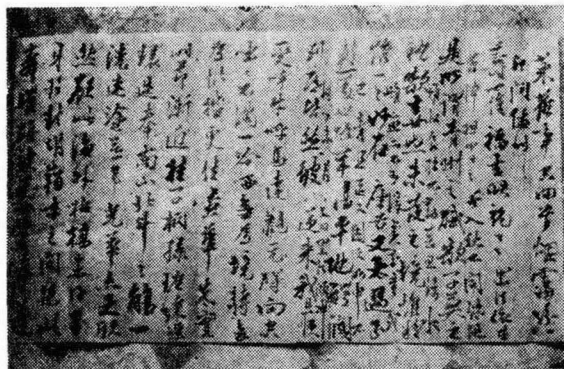
吾園의 神韻生動하는 筆致와 無所不能의 솜씨로 金剛山이나 紅流洞을 그린 作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興趣가 있을 것이며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漂母나 나물캐는 색시를 그린 小品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가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으니 이것은 한갓 筆者만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二十五·六年前 偶然한 機會에 筆者는 硯硯과 硯지몽텅이 속에서 뜻밖에 眞景圖와 風俗圖가 한꺼번에 그려진 吾園의 大作 梨谷山莊圖 一幅을 얻었으니 그 때의 기쁨이란 이루 形言할 수가 없었다.

梨谷山莊圖는 橫이 一二五·六cm 堅가 六三·一cm의 大幅橫披로서 峨嵋山下의 梅谷이라는 風光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數三棟으로 된 山莊이 中心이 되어 左右로 展開되는 我邦 特有的인 멋진 田園風景이 吾園의 무르익은 筆致로 그려졌는데 부드러운 기운이 畫幅에 가득 차 있었다.

山莊의 뒤는 鬱蒼한 巨樹古木의 森林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로는 멀리 峨峨한 高山의 雙峰이 솟구쳤고 疊疊한 遠近의 連峰들이 左右를 물결치며 屏風을 두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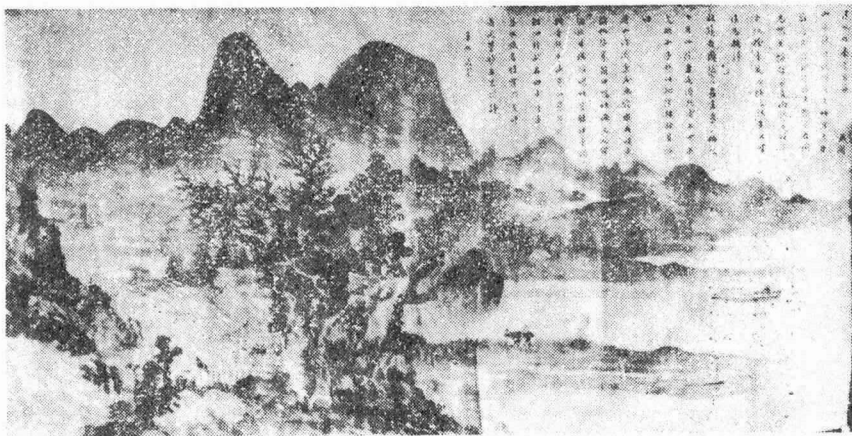
山莊 衽은 앞뜰을 지나면 다시 奇樹怪岩으로 된 아담한 앞산이 있고 들



### 札 史 簡 秋

壽履福吉歌祝歌祝 累從 依昔是所謂青 州之賦歟、子莫之執 歟、喜怒未發之境惟 精惟一之妙、在座右、 又太過分數處、世路 羊腸、平地鰓瀾、到 皆然、被以逆來、我 且順受、呼牛呼馬、 達觀无碍、向空咄々 不滿一冷晒無爲境、 轉無爲虬撼更佳黃華 朱實時節漸近、桂子 桐孫、班綵瑤環、迭 奉南山北斗之觴、一 洗迷塗暮年光華、亦 足欣然、顧此海外枯 槁、未得呈身於封胡 羯末之間、挹此壽曜 頌被无疆、多少蓬萊 舊事、空回首烟靄紛 紛、紛蕉悴阻胃之苦、

入秋不開、饑澁難收、食指不動、甚思錦水雌魚而不可得矣、前書或已青照 適又因便、略申不備、丁未八月十七日 累從 渤冲 文教部에서는 十二月七日附로 다음과 같은 十點의 國寶를 새로 指定 하였다.



앞을 타리에는 님이 한 마리 앓아 있었다.

山莊 뒤 森林 오른

쪽 山 밑으로 는 멀리

松林에 싸인 兩三村

家가 보이고 村家 앞

알으막한 野山을 지

나면 앞이 탁 터지며

시원한 江上風景이

나타나서 一葉扁舟

에 漁翁이 한가로이

즐고 있고 江가에는

牧童이 소를 타고 돌

아오며 노란 저고리

에 푸른 치마를 입은

村색시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간

다. 草岸에는 나귀

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중에도 牧童과 광

우리를 이고 가는 색

시가 참으로 아름다

움게 그려져 있다.

畫幅의 右上 空間

에는 能熟한 筆致로

다음과 같은 畫題가

가득이 쓰여 있다.

東狂徐生見而佳之挹筆興唱

作爲欲詩

此簇吾園張君爲畫吾 伯父

卜居山莊者也圖旣成不可無

題故 山子敢以拙構拜題其幅

曰

眉山嵯峨梨谷幽寂水石明麗

前記한 畫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山莊圖는 吾園이 眞景을 忠實히

寫生하여서 그 風景이 조금도 實景과 다름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當時 漢江邊의 閒寂한 風景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竹溪老台란 어떤 老風流客인지 若干 詳考해 보았으나 아직 모르겠고

梨谷山莊의 主人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다.

흔히 古書畫나 書籍에서 보는 바이거나 姓名이나 雅號 또는 地方의

名稱等을 表示하는 글자나 所藏印같은 것을 지워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

山莊圖도亦是 畫題의 첫 줄 肩峯之南有谷曰 以下 三, 四字를 지워버리

고 畫題의 끝 줄 辛卯孟夏 以下 三, 四字를 지워버려서 山莊圖의 畫題를

쓴 조카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山莊의 主人인 그의 伯父되는 사람이 누

구인지를 모르게 되었다.

끝으로 이 山莊圖는 吾園의 四十九歲 때 作品이다.

## 大接型 誌石

林 憲 眞

이 大接型 誌石은 京畿道 江華郡 三海面 古墳 出土로서 德壽宮美術館에 收藏된 것은 西紀一九一三年 即 四十八年前이다.

本誌 第一卷 第五號에 潤松 全鑿弼 先生이 壺型誌石을 發表한 바도 있었는데 그와 形體가 다른 大接型 誌石을 紹介한다.

眉峯之南有谷曰□□□幽閑  
山水絕奇侯誰居矣竹溪老台

癖愛峨洋杖屨往來張君吾園  
爲寫其境髣髴眞面悅若對鏡